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15 군현자명도

보우 스님 원융회통 이상좌 그림에 담겨

고려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불교문화는 조선이 건국된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건국 초기 정도전은 <불씨잡변(佛氏雜辨)>에서 억불론을 주장해 주자학적 입장에서 불교배척을 체계화했다. 태종 이방원(재위 1400~1418)이 정권을 잡으면서 억불정책은 대대적으로 추진되는데 서울 외곽 70여개의 사찰을 제외한 전국 사찰의 재산과 노비를 몰수했으니 자연히 선가(禪家)의 다풍(茶風)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중종(재위 1506~1544)은 승려의 출가를 규정한<경국대전>의 도승조(度僧條)마저 삭제해 사실상 의 폐백이 정책적으로 추진됐고 승려에게는 환속이 강요됐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활동한 허응보우(虛應普雨, ?~1565) 스님은 유교와 불교의 갈등을 뛰어넘는 불이상을 설파함으로써 조선불교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한 인물이다. 그는 선교 양종과 승과를 복구하고, 도승제(度僧制)의 부활에 기여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사림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스님의 다시(茶詩)에는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보우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절에 찾아와 불교를 배척하고 스님을 욕보이려한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무척 마음 아파했는데, 보우 스님은 오히려 이 시를 지어 읊음으로써 그들을 달랬다.



전 이상좌, '군현자명도', 견본수묵, 28x24.2cm, 간송미술관 소장.

명의 현인(賢人)들이 모여 차회를 여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 간결하게 배경이 생략된 과격적인 구도는 화면 중앙에 다관을 배치하고 인물들의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참선함을 배가시켰다. 화로 가까이 둘러앉은 세 명의 인물은 각각 환속에 찻잔을 들고

임금 위해 불교 배척함은 참모 선비의 일이며(爲君排釋眞儒事) 부처 받들고 공자를 공경함은 선가의 유포이다(戴佛尊儒是釋風). 허물며 주인으로 저 손님을 공경한다면(況以主能恭彼客) 어떤 손이 우리를 함부로 하리(何有妄誣毀吾躬). 단조와 법회를 하는 무리들은(願諸丹雘修齋業) 부지런히 차를 다려 부처님 궁전 빛내기를 바랄 뿐이라네(勤辦茶湯耀梵宮). -역: 박동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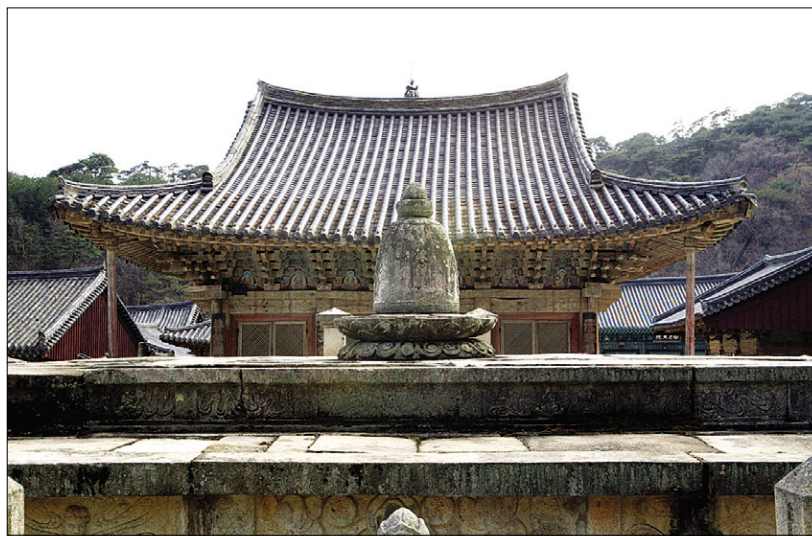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 세태를 따르는 선비의 일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받들고 공자님마저 포용하는 것이 불가의 전통이라 한 것이다. 그 넓은 마음 씀씀이가 차의 향만큼이나 은은하고 멀리 전해지는 듯하다. 이렇듯 시련 속에서도 불교를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원융회통 사상은 더욱 깊어지고 차의 정신은 그 격조가 오히려 높아졌다. 간송미술관에는 스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 이상좌의 차 그림이 한 점 전해진다. 그의 그림으로 전칭되는 '군현자명도(群賢煮茗圖)'에는 여섯

있거나, 한쪽 팔로 땅을 짚는 등, 짐짓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말없이 다량만을 바라보는 표정 속에 내심 차를 기다리는 설렘이 느껴진다. 그들의 주변으로 다시 세 명의 인물들이 마천가지로 이 광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먹색으로 표현한 간략한 필선의 옷자락에는 속진을 풀고 은일하는 고매한 현인의 풍류가 드러나 있다. 마치 한 편의 선화(禪畫)를 보는 듯, 숙련되고 화려한 기법 대신 고고한 정신세계를 드러낸 그림을 통해 우리는 세간의 유행과는 상관없이 진정으로 차를 아끼고 이해했던 현인들의 모습과 이상향을 머무어 짐작할 수 있다. 유교와 불교가 서로 상반된 체제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정신적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담박(淡泊)'과 '소쇄(灑灑)', '쇄락(洒落)'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불교의 '정정(靜靜)' 상태와 상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성이 고차원적으로 고양된 그 공통적인 공간 속에 언제나 맑고 투명한 차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2 통도사 금강계단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조용히 걸어 부처님 곁에 가 있다. 추위에 떨었을 부도의 이기는 새벽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서있고, 건너 보이는 법당의 기와는 행자의 발걸음처럼 사뿐히 놓여있었다. 이를 모를 산새 소리가 천년 묵은 침묵을 깨고 날아가는 아침, 해속해진 부도를 바라보며 통도사 금강계단을 걸었다. 계단의 장엄 위로 가을 햇살이 다가와 앉았다. 그저 돌덩이인 부도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허물 수 없었던 마음들이 무너져, 그저 한 순간의 끝에 서있었을 뿐인데 지나간 시절들은 끝없이 다가왔다. 긴 길은 스님이 계단 앞에서 합장을 한다. 계단을 나서니 들리지 않던 어울림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다.

옛 관화의 세계

종밀 스님이 소를 짓다 종밀조소(宗密造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종밀 스님이 원각의 뜻을 깨닫고 깊이 진리의 취지에 도달해 마침내 <원각경>의 소초를 저술한 후 종남산을 중심으로 법을 펼치는 장면이다. 석종밀(釋宗密: 780-841) 스님은 유교·도교를 불교의 입장에서 정의해 삼교일치설(三教一致說)을 전개했다. <원각경(圓覺經)>을 세상에 반포(頒布)한 공적이 크며, 중국 화엄종의 5조로 속성은 하(何)씨며, 시호(諡號)는 정혜(定慧)이다. 황상 산시(陝西) 악현(鄜縣)의 규봉 초당사(草堂寺)에 머물렀으므로 세삼 사람들은 '규봉 대사(圭峯大師)'라고 불렀다. <원각경> 주석서를 저술한 외에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를 지어 교신(敎禪) 일치설을 주장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님은 선행을 지키지 않고 널리 경론을 강의하면서 이름난 고승에 노닐고 큰 도읍지에서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를 힘쓰고 있으니 이것은 많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의 합일이 아닙니까? 어찌 명성의 이익을 있는 사람이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허허! 논의하는 사람들이 어찌 대도의 취지를 알겠는가? 무릇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만법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누어져서 계·정·해가 되고 그것이 전개되면서 육바라밀이 되고 그것이 흩어지면서 만 가지 행이 되는 것이니 이 모두가 일찍이 한마음이 아닌 일이 없었고 한마음이 일찍이 만행과 어긋난 일이 없었다. 선이라 하는 것은 육바라밀의 하나일 따름이다. 이것이 어찌 모든 법을 총괄할 수 있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고 교에 매달려 포교하는 것은 명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질타하는 사람에게 어찌 불황의 뜻을 알겠나면서, '한마음이라는 것은 만법이 생겨난 것이지만 만법에 예측되지 않는다. 이를 얻는 사람은 만법에 자유자재할 것이고 이를 본 사람은 교에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중생을 제도함에 급급하고 중생들을 개유하는데 급급해 귀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초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찾아가고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찾아가고 분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종밀 스님의 선교일치사상을 통해 명분이나 이념에 치우쳐서 근본을 잊어버리고 있는 현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적막-陳田寺址에서

뜨거운 물 한 바가지에 차가운 물 한 바가지 매정하게 부으면 맹근한 마음이 되듯이

매 물은 세월을 우격우격 버무려 군데군데 검버섯으로 피어난 주춧돌

속절없이 허물어진 하늘 한 자락 돌탑 하나 동그마니 꽃이 놓고

마음 모아 소원 빌며 탑돌이 하는 천 년의 저 바람소리 보이는가

약자지절 골짜기에 넘쳐된 물소리 발소리 흐벅지던 그 시절 저 밤중소리 보이는가.

-김완성, <현대시학> 11월호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종밀조소(宗密造疏)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헵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된 원사)를 합성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라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④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용기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헵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목욕이, 냉수마찰, 스팀마찰,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원 (한국산)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헵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목욕이, 냉수마찰, 스팀마찰,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압을 중심으로 등골계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각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 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불교 현불삼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철 얼린 바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낫습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얼어지므로 때가 안 낫습니다.
- 한자목욕용으로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향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들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 전통
효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을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j.co.kr